

# 가족친화마을 조성의 동기화를 위한 관련변인 연구

## - 대전시 아파트 거주자를 중심으로 -

차 성 란(대전대 교수) · 이 해 욱(우송대 교수)

가족친화마을을 활성화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적 요소는 주민들을 마을만들기에 참여토록하는 동기화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진 바가 없다. 이에 본 연구는 가족친화마을 조성에 긍정적인 동기화가 가능할 집단을 파악하기 위해, 대전시 소재 아파트 거주자를 대상으로 가족친화적 환경과 관련된 주택내, 외부의 물리적 환경에 대한 선호변인, 그리고 사회인구 및 주거변인이 가족친화적인 마을환경 선호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조사도구로 주택내부의 물리적 환경 중 부엌 및 식당의 평면구조에 대한 선호는 식생활 영역의 가사노동에 대한 가족참여가 용이한 평면구조를 포함하여 9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주택외부의 물리적 환경에 대한 선호로서 아파트 단지내 공동시설은 탁아시설, 스포츠시설, 노인시설, 공동텃밭 등을 포함하여 17개 문항, 가족친화적 마을환경은 도보통학, 범죄로부터의 보호, 이웃과 어울릴 수 있는 공동공간 등을 포함하여 11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설문 문항은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작성 시 김정순(2002), 이유진(2008)의 연구를 참고로 하였다. 각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값이 0.688, 0.869, 0.896으로 신뢰할 만한 수준이었다. 사회인구학적 변인 및 주거변인으로는 자녀수, 첫 자녀연령, 응답자의 직업, 교육수준, 가계소득, 주택소유여부, 주택면적, 거주기간 등을 포함하였다. 조사는 2010년 9월에 대전시 5개구 소재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부 50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총 418부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자료분석은 PASW 18을 이용, 빈도 및 백분율과 요인분석, 회귀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친화마을환경 선호 영향 분석을 위해 요인분석한 결과 부엌 및 식당 변인은 ‘가족참여’, ‘소통·분리조절’, ‘식생활중시’, ‘공간효율’의 네 개 요인이 추출되었다. 공동시설은 ‘공동작업시설’, ‘문화체육시설’, ‘공동보육시설’, ‘공공서비스’의 네 개 요인이 추출되었다. 둘째, 부엌 및 식당에서 추출된 네 개 요인, 공동시설에서 추출된 네 개 요인과,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및 주거변인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가족친화마을환경 선호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회귀분석한 결과 아파트단지내 공동보육시설에 대한 선호가 높을수록( $\beta=0.367$ ,  $p<.001$ ), 문화체육시설에 대한 선호가 높을수록( $\beta=0.346$ ,  $p<.001$ ), 첫 자녀연령이 낮을수록( $\beta=-0.160$ ,  $p<.01$ ), 자녀수가 많을수록( $\beta=0.143$ ,  $p<.01$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beta=-0.101$ ,  $p<.05$ ), 공동작업시설에 대한 선호가 높을수록( $\beta=0.091$ ,  $p<.05$ ), 식생활중시 정도가 높을수록( $\beta=0.084$ ,  $p<.05$ ) 가족친화마을환경에 대한 선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대전시라는 특정 지역 거주자만을 조사대상으로 했으며, 가족친화마을환경 선호의 영향변인들에 대한 탐구적 시도라는 점에서 추후 조사도구에 대한 검증 및 조사지역의 확대가 요구된다. 연구결과는 가족친화마을환경 조성 시 갖추어야 할 주거시설 요소로 제시될 수 있으며,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가족친화마을 조성을 위한 공동체 활동에 참여케 하는 동기부여를 하는데 있어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